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조화된 건물을 짓자

You might built that a beauty and convenience are in harmony with architecture.

李光炯/KAIST 전산학과 교수

by Lee, Kwang-Hyeong

나는 몇년간의 프랑스 생활을 하면서 한때 하늘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다. 프랑스 국토의 70% 이상이 평지이고, 나머지 30%가 산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산지가 70%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뭔가 바뀐것 같다. 그런데 더욱 나를 속상하게 한 것은 그들의 거의 모든 평지는 농토이고, 산지는 모두 산림이 우거졌고 관광지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속열차(TGV)에 몸을 실고 평원을 가로질러 지평선을 향해 몇시간을 달리다 보면 산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 산들은 대부분 스키장 등의 관광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름진 농토와 관광자원화된 산이 단순한 신의 선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 그들이 오늘과 같이 아름다운 국토를 가지게 되기까지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자원화된 프랑스의 모든것

그 보다도 파리시내의 잘 보호된 건물과 기념물 등을 보면 그들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기울이는 노력을 알 수 있다. 시내에서 관광객들이 아름답다고 바라보는 길거리의 건물들은 100년 또는 200년 전에 세워진 것 들이다. 그 당시 건물에 화장실이 있을 리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을 리 없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건물이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 전부를 문화적 유산과 관광자원으로 생각하며 보존하고 있다. 세계1차대전과 2차대전 때 파리가 독일군에게 포위되었을때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독일군에 넘겨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후 문화에 대한 의식을 옹변으로 보여준다.

파리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의 개조는 문화재 심의회의의 철저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언제나 변경은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한다. 따라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불품없이 붙어있고, 심지어는 원형계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화에서 보듯이 철창같이 생긴 이상한 엘리베이터가

등장하기도 한다. 더욱 심한 예로는 리옹시의 옛날거리에는 9세기전에 세워진 3~4층 건물들이 있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윗층에는 아직도 화장실이 없어서 밤에는 요강을 사용한다고 한다. 관광자원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정책에 대하여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생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항상 공존할 수 만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의 집을 짓고서

나는 요즈음의 건축에서도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갈등을 빚는 예를 많이 본다. 4년전의 일이다. 나는 나의 조그만 집을 지을 기회가 있었다.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집을 한번이라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 많은 기대를 안고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나는 우리가 희망하는 몇가지 사항을 이야기 했다.

얼마 후 설계도가 완성하였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멋지게 설계되어 있어 우리는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몇가지 보완할 점을 발견한 우리는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외였다.

그 원인을 건축사와 우리 사이에 있는 건축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건축사는 건물의 아름다움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는 건물을 외부에서 볼 때 너무 단조로우면 안되기 때문에 울퉁불퉁 나오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

아름다움과 편리함은 상호 배반관계에 있는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니다. 자동차 설계에서 보듯이 내부와 외관이 그리고 아름다움과 편리함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를 평가할때 도면만 가지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건물이 완성된 후에 사용자까지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하면 내부에서 불편하고 공간사용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 건물에서 사는 지난 4년동안 나는 그때 좀더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곤 한다. 물론 그때 건축사 주장에 의해 잘된 것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지금까지도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당시 건축사 이야기대로 울룩불룩 했기 때문에 외관이 멋있어졌다. 하지만 그속에 사는 사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사실 들어가 살다보면 집의 외관을 살펴볼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거의 매일 느낀다.

결혼할 때 얼굴이 예쁜 여자가 좋은가 마음씨가 고운 여자가 좋은가하는 이야기가 있다. 결혼 초기에는 아내의 얼굴을 보다가도 몇년이 지나면 편하게 해주는 여자가 좋다는 말이 생각난다. 물론 얼굴도 어느정도는 좋아야 한다고 하듯이 건물도 어느정도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할것이다.

불편한 우수설계상 건물

대덕연구단지내에 있는 과학기술원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유명한 회사가 설계했다고 한다. 그러나 건물이 완성되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과학기술원내에 있는 시스템공학연구소 건물이다. 14각형에 8층건물로 외관이 유리로 장식되어 매우 인상적인 이 건물은 설계부문에서 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외관의 아름다움이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건물내에 있는 모든 사무실들이 사각형이 아니고 마름모꼴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된다. 외부에서 보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 외에도 현실을 외면한 건축설계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촘촘하게 달아놓은 형광등을 이제 절전하기 위해서 하나건너 소등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냉난방식 건물이라고 하여 창문을 조그맣게 해놓고 절전운동으로 냉방을 중단하면 짐통속에서 현대건축의 맹점을 되새기고 있다. 복도에 타임 스위치를 붙여놓으면 될것을 보통스위치를 붙여 놓고서 소등하기 위해 애쓴다. 큰 맘먹고 건물을 세울때는 시설을 최고로 하고 싶지만, 그것을 유지할때는 힘겨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편리하며 아름다운 건축을

나와같은 문외한이 볼 때에도 건축은 예술과 공학이 결합된 종합기술이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이고, 또한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공학은 의미가 없다. 기념물이 아닌 생활을 위한 건물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따르게 된다. 그 제약은 사회와 국가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에게서는 에너지 절약과 유지보수가 그 중요한 제약이 될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현실에 적합한 편리한 건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갈등을 빚을 때는 그 건물의 용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건물이 기념물이 아니고 일반 생활공간이면 편리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파리지민들이 지금 고통을 참고 사는 것은 그들의 집이 이미 기념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아름다움과 편리함은 상호 배반관계에 있는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니다. 자동차 설계에서 보듯이 내부와 외관이 그리고 아름다움과 편리함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를 평가할때 도면만 가지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건물이 완성된 후에 사용자까지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